



전주대 등, 지역 산업형 AI 인재 양성 '맞선'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25일 본관에서 메인비즈 전북연합회(회원사 약 750개) 및 이노비즈 전북지회(회원사 약 300개)와 지역 산업형 AI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와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는 혁신 중소기업 단체로, 전북 지역 내 제조·서비스·기술 분야 핵심 기업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

전주대학교 및 양 협회는 △산학협력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첨단 공학 및 AI 등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분야 협력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 강화

전북 서부해바라기센터 이전 기념식

전북특별자치도도는 26일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전은 피해자 접근성과 사생활 보호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념식은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관계기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기존 권역외상센터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면서 면적을 130.79㎡에서 175.58㎡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독립된 공간 확보를 통해 민감정보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 상담·치료 공간도 확충돼 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된다.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는 2017년 12월 개소 이후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운영을 맡아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24시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총 230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의료·심리·상담·수사·법률·동행 지원 등 총 9,500여 건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피해자 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위기지원과 이동지원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초기 대응부터 치료·법적 절차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도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피해자 중심 지원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 동선 개선과 공간 분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 김제시에 고향사랑 기부

김제시는 26일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2년 연속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1979년에 창립한 한국청과는 농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매진해 온 도매시장법인으로,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 나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산불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박상헌 대표이사는 2년 동안 1,000만원씩 기부해 생생한 600만 담배포 포인트를 고향인 청하면에 재기부하기로 했다.

/김제=곽태 기자



새만금청-군산기계공고, 산학관 동반체제 구축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채정배)와 새만금 미래기초 실현을 위한 산·학·관 동반체제 구축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만금 산업 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연구·개발을 위한 산·학·관 동반체제 구축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새만금 산업 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연구·개발을 위한 산·학·관 동반체제 구축 업무협약(MOU)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미래학교 이해도 높이고, 내실있는 운영 도모

전북교육청, 2026년도 운영 계획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학교 교육모델 확산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 전북미래학교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내 148개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전북미래학교는 '미래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기반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북교육의 대표 모델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미래학교의 주요 운영 과제와 예산 집행 지침을 안내하고, 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기초·기본학력 향상 AI·디지털 기반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 혁신,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제시됐다. 특히 창의적 교육과정은 IB 프로그램과 세계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문예체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연간 멘토링을 제공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네트워크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임실고 7회 졸업생들, 모교에 장학금 전달

임실고 7회 졸업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18번째 장학금을 후배들의 면학을 위해 써달라며 쾌적, 후배사랑을 표현했다.

26일 교장실(교장 이선구)에서 본교 7회 장학회 2025년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대상자는 4명으로 이들에게 각 50만원(총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현재 본고 7회 졸업생 28명으로 이루어진 임실고등학교 장학회는 17년째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임실고 제7회 장학회라는 장학회 모임(현재 23명)을 조직해 17년째 운영 중이며 졸업생들의 기부를 받은 전액과 장학회의 정기 기부금을 합산해 총액은 5,810만7,000원에 이른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술내고,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협약

전주술내고등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전주술내고는 지난 25일 전주시립도서관 꽃ים 강당에서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지역 독서문화를 체험하고 평생 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교도서관 저자 초청 강연을 지원하고 '전주 올해의 책'과 연계한 100일 필사 및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독서대전 강연과 북마켓 참여, 전주도서관여행 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학생 참여 중심의 도서관이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독서 행사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 구축이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이정운 선수, 올해 국가대표 됐다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금메달

고창군청 소속 이정운(78kg이하급) 유도선수가 충남 보령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026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이정운 선수는 16강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를 상대로 업어치기 절반승 8강에서 포항시청 선수에게 허벅다리걸기 절반승, 준결승전 경기에서는 동해시청 선수를 상대로 업어치기 유효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경남도청 선수와의 결승전에서는 상대선수의 반칙패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작년 초 고창군청 여자유도부에 영입된 이정운 선수는 지난 1차 선발전에 이어 이번 2차 선발전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올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고창군은 2024년~2025년 박은이 선수(개명 박서운)의 국가대표 선발에 이어 2026년 이정운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됨으로써 3년 연속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청년농 지원 소통협의체 구성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6일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 협의체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시보건의, 2026 우수자원봉사자 소양교육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24일, 김제시를 대표하는 우수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우수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북쪽도서관 김승수 관장이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자원봉사'를 주제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자원봉사의 결과보다 실천하는 과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곽태 기자

남원시보건소, 건강 새싹 심기 운영

남원시보건소는 유아부터 올바른 건강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유아건강진진 프로그램 건강 새싹심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내 어린이집 15개소 총 333명의 유아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어린이집별로 직접 방문해 월 1회씩 총 3회로 7월 말까지 진행되며, 4세부터 7세까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체험형 건강교육으로 구성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내면 농악단, 생필품 전달 이웃사랑 실천

남원시 산내면 농악단(단장 이규동)은 지난 25일, 정월대보름을 지신밟기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180만원 상당의 생필품(화장품 등) 18박스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며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산내면 농악단은 지난 2008년 창단 이래 현재 29명의 단원이 결속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예술 단체이며, 지역의 주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신명 나는 가락으로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산동면 목동마을 주민, 산동면에 성금 기탁

남원시 산동면 관계자는 지난 25일, 산동면 목동마을 주민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허브화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목동마을은 매년 꾸준한 성금을 보내고 산불 등 재난 재해로 피해를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년 전 이불세탁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부하는 등 선정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계농협, 신규조합원 농협 이념교육

장계농협은 지난 25일 농협 2층 교육실에서 조합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농협장계농협 이혜성 교수는 농업의 이념, 역할, 권리, 의무 등을 중심으로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운영원리, 조합원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26 진안관광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사)진안관광협회(이사장 이재동)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2026 진안관광 비즈니스 아카데미(마이 아카데미) 2기 교육생을 오는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MAISON)'과 '나만의(MY)' 비즈니스를 만든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진안군의 열린 관광 교육 브랜드 '마이(MAI)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진안군에서 관광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현재 관광 사업을 운영 중인 주민 및 청년을 비롯해 진안 관광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알림

▲제3회 장애인문화예술 콘서트= 일시: 28일 오후 2시, 장소: 전주시청 강당,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주관: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회,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 문의: 063-286-6669, 010-7304-5665(김양숙)